

## 식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분 향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 \_ 성령출세설

1. 위령문 낭독

1. 천덕송 합창 \_ 대신사 환원기도가

1. 추 념 사

1. 천덕송 합창 \_ 위령송

1. 분 향

1. 심 고

1. 폐 식

---

#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 씨 옥과 모친 한 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 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 포덕 1년(1860)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 포덕 3년(1862)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1월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가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 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포덕 4년(1863) 최초로 임명하시다.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붙잡히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포덕 5년(1864)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1월 6일 대구 감영에 갇히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 (41세)

# 위령문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3월 10일은 대신사께서 순도하신지 15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순도순국하신 스승님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께서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무극대도를 창명하신 후 선열들께서는 수도와 포덕에 전념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감수하며 이 땅에 무극대도를 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운이 여의치 못하여 거룩한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한 채 참형, 교형, 전사, 옥사, 익사, 장사, 총살 등 참혹하게 순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하여 살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열들께서는 우리의 무극대도가 인간의 행복과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어 도탄 중에 헤매는 창생을 구원하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으니 그 숭고한 뜻과 불멸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시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울을 공경하지 않고 한울의 이치를 순하게 따르지 않는 각자위심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사회대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과 병폐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요, 따라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생명체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천주의 참진리를 갈구하며 인내천 정신을 밝히는 햇불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열들의 순도가 헛되지 아니한 덕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울님께서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어 화생시켜 육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스승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열들의 성령이 우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불굴의 정신을 받들어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수도와 포덕에 힘쓰면서 대도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시옵고 명우(冥祐)가 있어지이다.

포덕 156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 추 념 사

한울님 감응하옵소서!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후천 오만년 무극대도의 성공을 위하여 육신으로써 대도의 명운을 살리고 순도하신 지 제1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수운대신사님과, 갑자년 이후 순도하신 스승님과 선열들, 후천개벽의 역사와 천도 사업을 위하여 성지우성하신 모든 동덕들의 성령출세를 기원하오며, 삼가 추념의 제전을 봉행하옵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포덕전 36(1824)년 10월 28일 경주 현곡면 가정리에서 탄생하시어, 주유천하의 구도 끝에 포덕 1(1860)년 4월 5일 금불문고불문 금불비고불비의 무극대도를 창도하시고, 이듬해(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셨습니다.

후천개벽의 새 소식을 들은 수많은 지식인과 남녀노소, 귀천고하를 막론한 민중들은 용담정으로 몰려들어 무극대도의 기운은 나날이 성장하여 갔습니다. 용담정 일대는 후천 선경이요 지상천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수운대신사의 가르침은 용담 물길을 따라 사해로 퍼져 다시 개벽의 씨앗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포덕원년(1860년) 4월 5일, 후천개벽의 새봄은 시작되었지만,

은 세상에 꽃이 피기 전 불어온 꽃샘추위는 참으로 엄혹하였습니다. 선천의 지배 권력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대신사를 체포하여 갑자년(1864)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참형에 처하였습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청수 일기를 앞에 두고 심고로써 “오순수천명(吾順受天命)”을 선언하시고, “겹겹이 쌓인 세상의 티끌을 씻어 버리고자 표연히 학을 타고 신선의 땅에 임하시어” 후천 오만년 무극대도와 융합 일치하는 무궁 장생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청수를 모시는 까닭은 청수가 만물의 표준이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수운대신사께서 모신 청수를 함께 모심으로써 그 마음과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되새겨 보는 오늘입니다.

수운대신사의 성령이시여!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151년이 지난 오늘이 시간에도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각자위심의 세태에 휩싸여 천지가 아득하며, 우리나라의 운수는 삼절의 운수를 벗어나지 못하여 외세의 강점과 분단의 고통에 신음한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인지(人智)가 극도로 정교해지고, 세계는 한통속으로 이어지며, 물질의 발달은 한계를 초월하여 확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성장에 비례하여 인심은 나날이 위태로워져 온 것을 보며, 그제야 세상 사람들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 하시고 각자위심으로부터 동귀일체할 것을 가르치신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찍이 대신사께서는 마땅한 절기가 오면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봄이 오고 “봄바람이 불어 지나가니 모든 나무는 일시에 알아차리고,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면 삼백 예순 날 삼백예순 송이 꽃이 피어 온 세상이 봄”이 된다고 노래하셨습니다. 대신사님 순도 1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후천 오만년의 역사의 흐름이 그 천명의 길을 따라 흐르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운수를 타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신사님 순도 150주년과 갑오 동학농민혁명 두 갑자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운수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을 찾아 나날이 천도의 문을 크게 두드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대신사님의 성령이 오늘 다시 출세하시어, 대도의 앞길을 크게 열어가는 조화의 자취가 뚜렷한 것이며, 대신사님을 따라 백만 성령이 한결 같이 음우하시는 감응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수운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께서 순도하시고, 또한 그 이후의 스승님들과 선열들께서 대신사님의 성공의 발자취를 따르는 어김없는 길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나라의 운수는 다시개벽을 위한 기운을 숙성시켜 왔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사님 순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천도 신앙과 수행의 길은 도산검수의 나날이었지만, 어느덧 온 세상 사람이 내 몸에 모신 천지부모님을 이야기하고, 만물이 더불어 형제이며 만인이 더불어 형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암성사께서 일찍이 갈파하셨듯이 천도교는 천도교 안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인의 천도교가 되어갈 것이며, 우리 민족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만인과 만물과 만사를 한울님처럼 모시는 무극한 가르침으로 이어 갈 것이오니, 오직 길을 더욱 바르고 밝게 찾아야 할 것은 오늘의



천도교인들임을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창도하신지 156년, 성령출세의 길로 나아가신 지 151년의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또한 한울님과 스승님의 큰 뜻과 명령도 사람이 이를 받들 준비를 다하지 못하면 도리어 큰 재앙으로 되돌려짐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큰 운수가 모두 이 도로 돌아오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남쪽별이 둥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돌아오면 대도가 한울같이 겹회를 벗으리라(南辰圓滿北河會 大道如天脫劫灰)”하신 그대로, 우리 스스로 원융무애(圓融無碍)의 한울님 마음을 기르고, 밝게 빛나는 대도의 장래를 열어나갈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신명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삶의 길에서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떳떳하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운대신사님과 해월, 의암, 춘암 스승님, 순도 순국 선열들의 일생은 역력히 보여주시었습니다. 우리가 일시도 수도 연성의 정성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이 이루어지고 도의 장래가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것은 한 개인의 성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사상수(師師相授)의 연원도통과 규모일치(規模一致) 기관도통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 일신의 안일과 현실의 편리를 앞세우기보다 근본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후학들의 참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수운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수백만 순도순국 선열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 순도 151주년의 추모 제전과 순도순국선열 추도식을 봉행하며, 스승님과 선열들께서 순도하심으로 무극대도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천 관념을 씻어 버리고 후천 세상의 개혁군으로 거듭날 것임을 재삼 맹세하옵니다.

이러한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는 동학혁명에서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개벽, 정신개벽 운동의 전통을 더욱 밝게 빛내는 사업을 정성을 다하여 전개함으로써, 굴곡진 지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어두운 시대 운수에 새로운 광명을 비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스승님들께서 그러 하셨듯이 이는 우리 교단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활로(活路)를 앞서서 열고, 후천 세상의 기틀을 위한 주춧돌이 되는 일입니다.

기둥은 마른 것 같으나 힘이 오히려 남음이 있다 하신 말씀이 오직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격려와 고무의 말씀이라 믿사오며, 순도의 순간에 모신 그 청수 위로 비친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살려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후학들이 될 것을 심고하오며, 삼가 추모의 말씀을 마칩니다.

한울님, 스승님, 순도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포덕 156(2015)년 3월 10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 性靈出世說(성령출세설)

의암성사 법설

1. 宇宙元來靈之表顯者也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니라.

2. 靈之積極的表顯 是有形也 靈之消極的攝理是無形也 故無形有形也  
即靈之現勢力 潛勢力之兩轉輪也

영의 적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섭리는 이것이 형상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으니라.

3. 茲有一物從之而忽有靈性之活動 是以靈之結晶 生物之組織也 以物之組織 又生靈之表顯也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써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만물의 조직으로써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니라.

4. 故 靈與世不過同一理之兩側面而已

그러므로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일 따름이니라.

5. 大神師 嘗 呪文之意解釋曰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是指稱以靈之有機的表顯 道破人乃天之定義也

대신사 일찌기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표현을 가리킴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니라.

6. 故性靈根本出世的矣 靈移而別無物 物移而別無靈 更無世 究竟 靈而需世 世而得靈 物物各遂其性 是神妙之性靈活動 應於萬機萬相 與器數應於出世調攝 譬如同一雨露 桃結桃實杏結杏子 是從千差萬別之植物 結千差萬別之果實

그러므로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영을 떠나 별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떠나 별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니라. 물건마다 각각 그 성품을 이룬 것은 이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응한 것이요, 기국대로 세상에 나 조섭하는데 응함이니, 비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천차만별의 식물에 좇아 천차만별의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7. 同一性靈 無量大德之妙法 順化大天大地之各個差別 鳶飛於天 魚躍於淵

같은 성령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덕의 묘한 법에 대천 대지의 각개차별을 순히 화하여,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것이니라.

8. 然而人是萬物中 最靈者萬機萬相之理 總俱體者也 人之性靈 是大宇宙靈性純然稟賦同時 萬古億兆之靈性 以唯一系統 爲此世之社會的精神也

그러나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 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9. 神師 受人乃天之心法 定向我設位之祭法 是表明宇宙之精神 即億兆之精神也 共更明定億兆之精神 即我一個體之精神也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한울인 심법을 받으시고 향아설위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10. 此以一層狹義而言之 前代億兆之精靈 爲後代億兆之精靈之點 祖先之精靈 與子孫之精靈 融合表顯 先師之精靈 與後學之精靈融合 永遠出世的活動有之也

이를 한층 뜻을 좁히어 말하면 전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니라.

11. 又 大人之德 與天地共活用靈性 故天與吾神師 但有有形無形之別 觀其靈性的契機則全爲同一範圍同一活動 同一表顯也 是天即人人即天之所由來 天地萬物共順應 時代億兆同進化故 其心法決非超人間的 全然合世間的出世間的

또 하물며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은 활동이 같이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니라. 천지 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억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 간에 나타난 것이니라.

12. 余嘗 梁山修煉之時 豁然得 「昔時此地見 今日又看看」 之詩句 是大神師之昔時余之今日 性靈上同一心法立言

내가 일찌기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에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 한구를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임을 말한 것이니라.

13. 大神師 既爲性靈出世矣 一切物物心心 皆不無此性靈之出世的表顯也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14. 然而吾人 以此覺得 未覺得之所以 全關係性靈之修煉不修煉 若以

吾人各受大神師之心法而性靈修煉之結果 一朝豁然境到之則 茲覺大神師之心法 一切宇宙之心法而從以覺自己之性靈 即大神師之性靈 不生不滅 無漏無增 是大性靈之根本的出世也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바는 전혀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치 않는 데 관계한 것이니,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심법을 받아 성령수련한 결과가 하루 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심법이 일체 우주의 심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증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 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

1. 포 - 덕 - 오 년 갑 자 삼 월 십 일  
 2. 형 장에 문 은 피 만 인 을 놀 션 때  
 3. 해 월신 사 불 러 부 탁 하 시 - 니  
 4. 한 그릇 청 수 로 영 결 하 시 - 니

1. 대 신 사 더 운 피 뿌 리 시 - 다  
 2. 대 신 사 절 명 이 스 물 두 - 번  
 3. 순 하 신 그 효 유 간 절 하 시 - 다  
 4. 굳 고 굳 은 그 맹 세 포 덕 광 - 제

1. 친 고 에 한 끼 친 대 구 장 대 야  
 2. 쌀 쌀 코 귀 먹은 세 상 사 람 들  
 3. 등 명 수 상 - 에 무 혐 극 이 요  
 4. 슬 프 다 환 구름 채 색 무 지 개

1. 한 울님 과 신 인을 몰 랐던 - 가  
 2. 과 - 친 - 통 곡도 듣 지 못 한 가  
 3. 주 - 사 - 고 수 심을 역 유여 한 라  
 4. 너 왜 우 리 수 심을 자 아내 는 고



후렴

거룩 하옵신 수운대 신사

높고 높으신 후천천 황씨

명을 주시고 천도 바꾸어

억조창생을 살리시 - 네

# 제14장 위령송

1. 장 평 갱 졸 많 은 사 람  
2. 함 지 사 지 출 생 들 아

1. 한 을 님 을 우 러 러 서  
2. 보 국 안 민 어 찌 할 꼬

1. 조 화 중 에 생 겠 으 니  
2. 대 저 인 간 초 목 군 생

1. 은 덕 - 은 고 사 하 고  
2. 사 생 재 천 아 닌 런 가

1. 근 본 조 차 잇 을 소 냐  
2. 불 시 풍 우 원 망 해 도

1. 불 망기 본 하 였어 라  
2. 입 사호 천 아 닐런 가

후렴

효 박 - 한 이 세 상 에

불 고 천 명 하 단 말 가

가 련 - 한 세 상 사 람

경 천순 천 하 였어 라

